

안데르센 (1805 ~ 1875)

안데르센은 1805년 4월 2일 덴마크 퓨네 섬의 작은 어촌 마을인 오펜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으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진보적인 생각의 소유자로 어린 안데르센이 문학적 재능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안데르센은 대학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였고 1833년 이탈리아 여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즉흥 시인〉이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된다. 같은 해에 내놓은 최초의 동화집은 동화작가로서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이후 동화 창작은 1870년경까지 계속되어 모두 130편이 넘는 동화를 지었다. 안데르센은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별거벗은 임금님〉 등 아동문학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수많은 걸작 동화들을 남겼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갖은 고생 끝에 작가로서 성공을 거둔 그의 작품 속에는 서정적인 문체와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파스한 휴머니즘이 맑고 포근하게 녹아 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안데르센은 1875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 날에는 덴마크의 전 국민이 상복을 입었으며 국왕과 왕비도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시인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으며 그의 아름다운 동화들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엄지 공주」

옛날에 아기가 생기길 소원하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를 딱하게 본 마녀가 아주머니에게 마법 씨앗을 준다. 그 마법 씨앗을 화분에 심고 물을 주자 예쁜 꽃이 피고, 그 안에 엄지손가락만 한 아리따운 소녀가 있다. 아주머니는 그 꼬마 아가씨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정성껏 보살핀다.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잠든 엄지공주를

자기 아들 신붓감으로 데려가 버리는데...

〈엄지공주〉는 안데르센의 순수 창작물로 발표될 당시에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동화이다. 이 이야기는 노래와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각색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미운 오리 새끼」

한 농장에서 일곱 마리의 오리가 태어난다. 그 중 한 마리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못생기고 행동거지가 달라 항상 놀림을 받는다.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오리는 마침내 모든 새 중 가장 아름다운 새인 백조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동화는 주인공의 긍정적인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오페라,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각색되었다.

엄지 공주

[제 1 장] 작은 소녀, 태어나다

p. 12-13 옛날 옛적에, 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다. 이 사실은 그녀를 매우 슬프게 했다. 그녀는 아이를 원했지만 자식이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마녀를 찾아갔다. “마녀님.”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가질 수가 없어요.” 마녀는 그녀의 고민에 대해 생각했다. “여기 마법 씨앗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집에 가져가요. 그것을 심고 물을 주세요. 그것에 대고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랑도 많이 주어요.” 여인은 씨를 심고 물을 주었다. 그 다음날, 거기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었다. 하지만 꽃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p. 14-15 여인은 꽃에 살며시 입맞춤했다. 곧바로 꽃이 피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견과껍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와!” 여인이 말했다 “엄지손가락만하네! 이 애를 엄지공주라고 부를 거야. 내 딸로 삼겠어.” 엄지공주는 엄마와 함께 집에 살았다. 엄지공주의 엄마는 그녀에게 늘 정소를 마련해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줄 부었다. 물 위에는 꽃 한 송이를 띄웠다. 엄지공주는 그 꽃 위에서 떠다녔다. 그녀는 그 작은 연못이 좋았다. 그녀는 물 위에 떠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p. 16-17 어느 날 밤, 엄지공주의 엄마는 창문을 열어 두었다. 그 창문은 엄지공주 옆에 있었다. 한 어미 개구리가 창틀로 뛰어올랐다. 어미 개구리는 내려다보았고 엄지공주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소녀구나.” 어미 개구리가 말했다. “내 아들과 결혼할 수도 있겠어!” 그 어미 개구리는 엄지공주를 들어올렸다. 그녀는 정원으로 폴짝 뛰어나갔다. 아침에 엄지공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매우 놀랐다.

p. 18-19 엄지공주는 크고, 뚱뚱하고, 못생긴 개구리 한 마리가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개구리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나는 개구리 아들이요.”라고 개구리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것어요.” ‘아, 안 돼.’ 엄지공주는 생각했다. ‘나는 그와 결혼할 수 없어! 너무 못생겼잖아! 또 이상한 것도 같아.’ “나는 파리를 찾으러 가겠소.” 개구리 아들이 말했다. “우리 결혼식 밤에 먹읍시다.” 개구리는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갔다. 엄지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거대한 연못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는 작은 나뭇잎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p. 20-21 엄지공주는 울기 시작했다.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나비는 작은 나뭇잎 위에 있는 가없는 엄지공주를 보았다. 나비가 엄지공주에게 말했다. “작은 소녀야, 네 작은 벨트의 끝자락을 나에게 던지렴.” 엄지공주는 자신의 벨트를 풀었다. 그녀는 한쪽 끝을 나비에게 던졌다. 나비는 입으로 그 벨트를 움켜잡았다. 나비는 재빠르게 날기 시작했다. 나비는 엄지공주를 물으로 끌어당겼다.

[제 2 장] 외로운 소녀, 집을 찾다

p. 24 아침에 엄지공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또다시 놀랐다. 커다란 벌레 한 마리가 엄지공주와 함께 공중을 날고 있었다. 그 벌레는 자신의 두 발로 엄지공주를 잡고 있었다. “사랑해, 엄지공주.” 벌레가 말했다. “너와 결혼하고 싶어!” “아, 안 돼!” 엄지공주가 말했다. “왜 이상한 생물들이 나를 사랑하지? 난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p. 26-27 벌레는 엄지공주를 자기 엄마에게 데리고 갔다. “벌레 엄마, 애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예쁘구나.” 어미벌레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른 누군가와 결혼해서는 안 돼. 상냥한 벌레 소녀를 찾지 그러니?” 벌레는 슬퍼 보였다. 그 벌레는 엄마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녀를 놓아 주어야겠어요.” 벌레는 다시 엄지공주를 들어올렸다. 벌레는 그녀를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p. 28-29 엄지공주는 몇 주일째 걸었다. 그녀는 배고프고 외로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커다란 거미 한 마리를 만났다. “안녕, 작은 소녀.” 거미가 말했다. “무슨 문제 있니? 넌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구나.” “맞아.” 엄지공주가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숲 속을 걸어 다녔어. 그리고 정말로 배가 고파.” 거미는 그녀에게 먹을 난알을 조금 주었다. 그녀는 재빨리 세 개의 난알을 먹었다. 거미는 엄지공주를 자신의 거미줄에 데려갔다. 그녀는 금세 잠이 들었고 이틀 동안 잠을 잤다. 깨어나자 그녀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녀는 거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걸었다.

p. 30-31 엄지공주는 계속 걸으면서 슬펐다. 그녀는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울었다. 작은 쥐가 그 나무에 살았다. 작은 쥐는 밖을 내다보고 불쌍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작은 소녀야, 작은 소녀야.” 쥐가 말했다. “무슨 일이니? 내 집으로 들어오렴.” “고마워, 쥐야.” 그녀가 말했다. 엄지공주는 쥐의 집으로 들어갔다. 쥐는 나무 속에서 가족과 살았다. 매우 좋은 곳이었다. 엄지공주는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녀는 그 가족과 몇 주일을 보냈다. 그녀는 어린 쥐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p. 32 어느 날 밤, 손님이 쥐를 찾아왔다. 옷기게 생긴 두더지였다. 그 두더지는 좋은 옷을 입고 모자를 썼다. 엄지공주, 두더지, 쥐들은 저녁을 먹었다. 두더지는 저녁 식사 내내 말을 많이 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자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더지는 또한 엄지공주에게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잘 보이지가 않아.” 두더지가 말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우리집에서 사는 게 어떻겠니, 엄지공주? 날 위해 요리하고 청소를 해줘. 네가 한 일에 대해 돈을 지불할게.”

p. 34-35 엄지공주는 두더지가 불쌍했다. 그들은 두더지의 집으로 갔다. 그것은 땅 아래에 있었다. 그 집은 매우 좋았다. 엄지공주는 요리하고 청소했다. 어느 날, 두더지가 말했다. “산책 가자. 넌 나와 함께 가야 해. 만약 네가 가지 않으면, 나는 코를 부딪히게 될 거야.” 그들은 땅 밑에 난 길을 따라 걸었다. 곧 그들은 아름다운 흰 새를 보았다. 그 새는 무척 아파 보였다.

p. 36-37 “어리석은 새 같으니라고.” 두더지가 말했다. “그 새는 항상 하늘을 날아다녀. 그래서 아프게 된 가야. 길에서 비켜, 새야!” 두더지는 새의 다리를 찼다. “그만!” 엄지공주가 소리쳤다. “이 불쌍한 새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리 가버려요, 두더지!” 두더지는 코를 치켜세웠다. 두더지는 가버렸다. 엄지공주는 새와 함께 지하에 머물렀다. 그녀는 씨앗들을 찾았다. 그녀는 가장 좋은 씨앗들을 새에게 주었다. 그녀는 불쌍한 새를 도우면서 몇 주를 보냈다.

[제 3 장] 작은 소녀, 사랑을 찾다

p. 40-41 곧 새는 점점 더 튼튼해졌다. “네가 날 도와줘서 기뻐.” 새가 엄지공주에게 말했다. “난 지금 행복해.” 새는 공기 냄새를 맡았다. “밖은 아주 추워.” 새가 말했다. “하지만 난 아직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어.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새는 곰곰이 생각했다. “엄지공주야.” 새가 말했다. “난 너를 여기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둘 다 남쪽으로 날아갈 수 있어. 거기가 훨씬 더 따뜻해.”

p. 42-43 엄지공주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가자!” “내 등에 타.” 새가 말했다. 엄지공주는 새의 등에 올라탔다. 그들은 날아갔다. 아래의 땅은 그들이 날아가면서 바뀌었다. 처음에, 땅은 차갑고 축축했다. 다음에는 모래가 뒤덮이고 건조해졌다. 마침내, 엄지공주는 따뜻하고 풀이 무성한 곳을 보았다. 새는 아주 큰 나무를 가리켰다. “나는 이 나무에서 살아.” 새가 말했다. “나는 꼭대기에 살아. 널 어디에 내려 줄까?”

p. 44-45 엄지공주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았다. 그것은 엄마 집에 있는 꽃과 닮았다. “저기에 내려와 줘.” 그녀가 말했다. 새는 그녀를 그 꽃에 올려 놓았다. “안녕, 엄지공주.” 새가 말했다.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큰 소리로 불러. 내가 있는 나무에서 다 들을 수 있어.” “고마워, 새야.” 그녀가 말했다.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엄지공주는 꽃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한 소년이 나타났다. 그는 엄지공주와 같은 크기였다. 그리고 그는 매우 잘생겼다. 그에게는 흰 날개가 있었다.

p. 46-47 “와!” 그 소년은 말했다. “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도 나와 같은 요정이군요.” “하지만 난 날개가 없는데요.” 엄지공주가 말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요정 소년이 말했다. 그는 엄지공주의 조그마한 뺨에 입을 맞추었다. 바로 그때, 흰 날개가 엄지공주의 등에서 자랐다. 그녀는 공중에서 위아래로 움직였다. “와!” 그녀가 말했다. “정말 기분 좋다!” “작은 요정 아가씨.” 요정 소년이 말했다.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주세요. 나는 다시 외로워지고 싶지 않아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p. 48-49 엄지공주는 그의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이상한 동물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 대부분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 소년은 못생기거나 이상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친절했다. 그는 그녀처럼 요정이었다. 엄지공주는 자신이 집에 온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소년과 거기서 지내고 싶었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많은 새들이 나무에서 지저귀기 시작했다. 벌레들도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보금자리를 찾았다.

미운 오리 새끼

[제 1 장]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p. 56-57 옛날에 행복한 오리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농장에서 살았다. 엄마 오리는 알들 위에 앉았다. 곧 오리 새끼들이 생길 것이다. 화창한 어느 날, 알들에 금이 갔다. 일곱 마리의 오리 새끼가 알에서 나왔다. 엄마 오리가 자세히 보았다. 엄마 오리는 당황했다. “여섯 마리의 예쁜 오리 새끼가 있네. 하지만 이 오리 새끼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엄마 오리는 일곱 번째 오리 새끼를 가리켰다. 그것은 회색 깃털과 이상한 갈색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p. 58-59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매우 달랐다. 미운 오리는 다르게 행동했다. 미운 오리는 다르게 헤엄쳤다. ‘그 애는 여전히 내 이야기야.’ 엄마 오리가 생각했다. ‘그리고 난 그 애를 다른 아이들만큼 사랑해.’ 하지만 다른 오리 새끼들은 심술궂었다. 때때로 어떤 날에는 미운 오리 새끼를 놀렸다. “너는 너무 못생겼어!” 그들은 놀렸다. “너는 개구리 같이 생겼어!” 다른 오리 새끼들이 웃었다. 밤에, 미운 오리 새끼는 종종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그는 생각했다. ‘왜 다른 오리들은 그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p. 60-61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연못에 갔다. 미운 오리 새끼는 거위들을 보았다. 그들도 미운 오리 새끼와 다르게 생겼다. “실례합니다, 거위님.” 미운 오리 새끼는 그들 중의 한 거위에게 물었다. “저처럼 생긴 누군가를 아시나요? 다른 어떤 새들이 저와 닮았나요?” “아니. 넌 정말 못생겼구나. 난 너처럼 못생긴 새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넌 여기를 떠나야 해. 이곳은 위험해. 이 근처에 총을 든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새들을 사랑하고 있지.” 미운 오리 새끼의 눈이 확 커졌다. 미운 오리 새끼는 매우 무서웠다. 미운 오리 새끼는 거기에서 도망쳤다.

p. 62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한 작은 할머니의 집에 갔다. 그 작은 할머니는 미운 오리 새끼를 보았다. ‘흠.’ 그녀가 생각했다. ‘저건 거위 같이 생겼네. 재를 삼아야지. 재가 나에게 많은 알을 낳아 줄 거야.’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는 거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는 암컷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미운 오리 새끼를 닭장에 넣었다. “너는 착한 거위야.” 할머니가 말했다. “알을 많이 낳거나,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미운 오리 새끼는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알을 하나도 낳을 수 없었다.

p. 64-65 크고 심술궂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근처에 살았다. “너 큰일났다.” 고양이가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화가 났어. 너는 할머니를 위해 알을 낳고 있지 않아. 왜 넌 알을 낳지 않는 거지? 너는 형편없는 거위야.” “하지만 나는 거위가 아닌 것 같아.” 미운 오리 새끼가 말했다. “그럼, 넌 뭐니?” 고양이가 물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대답했다. “몰라. 아마 나도 고양이일지도 몰라.” “네 등에 털이 있니?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아니.” 미운 오리 새끼가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고양이가 아니야.”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닭장에 왔다. “내 알들은 어디 있지, 바보 같은 거위야?” 그녀는 커다란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알을 낳는 것이 좋을 걸.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때려 줄 거야.”

p. 66-67 미운 오리 새끼는 정말 무서웠다. “난 이 닭장을 떠나야 해.” 어느 날 밤, 미운 오리 새끼

는 운이 좋았다. 할머니가 문을 약간 열어두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문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는 밤 새 계속 뛰었다. 아침에 미운 오리 새끼는 매우 피곤했다. 하지만 그는 안전했다. “휴!” 그는 말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안전해서 기뻐했다. 하지만 외로웠다.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길 원치 않았다.

p. 68-69 ‘난 평생 이 연못에 있을 거야.’ 미운 오리 새끼는 생각했다.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길 원치 않아.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많이 먹을 수 있어. 먹을 게 많잖아.’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연못에 홀로 머물렀다. 그는 몇 달을 거기에 있었다. 그는 많은 음식을 먹었다. 그는 훨씬 커졌다. 어느 날, 위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자신 위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흰 새들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 높이 있었다. 그들은 튼튼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 2 장] 기쁨의 눈물

p. 72-73 곧 날씨가 추워졌다. 겨울이었다. 삶이 매우 힘들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음식을 많이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추웠다. 그는 너무 약했다. 그는 물으로 헤엄쳐 나왔다. 그는 풀밭에서 잠이 들었다. 운 좋게도 마음씨 좋은 농부가 나타났다. 그는 불쌍한 미운 오리 새끼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농장으로 미운 오리 새끼를 데려갔다. 그는 자신의 두 아이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를 주었다. “애들아, 이 불쌍한 새를 돌봐주렴. 이 새는 매우 약하단다. 먹거나 헤엄칠 수도 없어.”

p. 74-75 그 아이들도 매우 착했다. 매일 그 착한 아이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다. 음식은 미운 오리 새끼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 봄이 왔을 때 그는 매우 튼튼해졌다. 또한 아주 커졌다. “너는 이제 우리 농장에 있기에는 너무 커졌어.” 농부가 말했다. “너는 연못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이들과 마음씨 좋은 농부는 작별인사를 했다. “우리는 네가 그리울 거야.” 아이들은 조금 울었다. 그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농장에 머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

p. 76-77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으로 돌아갔다. 그는 물을 보았다. 그는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와!’ 미운 오리 새끼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매우 다르게 보여! 나는 전혀 오리 새끼로 보이지 않아.’ 그는 아름다운 흰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길고 노란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보았다. 또다시, 그는 흰 새들을 보았다. 그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작년에 보았던 새들과 같은 새들이었다. 그들은 날아 내려와서 미운 오리 새끼 근처 물에 내려앉았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들에게로 헤엄쳐 갔다.

p. 78-79 “실례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말했다. “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몇몇 백조들이 웃었다. “정말 이상한 질문이군! 너는 우리와 같은 종류잖아. 너는 아름다운 백조야. 너는 우리 무리에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가 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연못에 왔다. 어느 날, 한 작은 소년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백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예요.” 그 큰 흰 새는 매우 행복했다. 그 새는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